

작업관련성 질병예방 대책 세미나



협회는 작업관련성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보건관리자와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역할과 과제를 정립하여 사업장에 적용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근로자 건강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작업관련 질병 예방 대책'을 주제로 한 산업보건 세미나를 7월 4일 한국종합전시장(COEX)에서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에서는 '작업관련성질환 예방대책(노동부 이신재 과장)', '산재 인정기준 및 보상사례(근로복지공단 강영원 국장)', '작업관련 질병의 발병위험도 평가(한국산업안전공단 박정선 실장)', '자동차 공장의 근골격계질환 발병과 관리(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이윤근 상임연구원)', '보건관리자의 역할과 과제(대우의료재단 거제병원 송인혁 과장)',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역할과 과제(협회 이명숙 부장)' 등의 연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되었던 내용의 전문을 본지에 3회(8·9·10월호)에 걸쳐 게재한다. **▶▶▶**

보건관리자의 역할과 과제

대우의료재단 거제병원 산업의학센터 과장 송인혁

1. 서론

최근에 이르러 산업의학적으로 문제시되는 업무관련성질환(직업병)의 패턴은 이전의 소음성난청, 중금속 및 유기용제 중독 등으로부터 근골격계질환과 작업관련성 뇌심혈관계질환 등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들에 의한 건강피해와 생산성 손실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질환은 대개는 만성적인 경과를 취하며 이미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제대로 진단되고, 흔히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하게 되므로 치료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따라서 조기발견과 조기치료가 특히 중요하다.

근골격계질환은 근로자에서 유병율이 높은 편이나 현재까지는 치료와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의 이유로 기본적인 특수검진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조기진단과 치료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많은 환자가 근골격계질환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으나 대부분 회사의 부속의원이나 물리치료실에서 근무 중 치료의 형태를 취하거나 외부 의료기관에서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업무 특성상 노동강도가 높으며 단순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이 많은 반면, 자동화가 어려운 조선업에서는 근로자의 노령화 현상과 더불어 이러한 근골격계질환과 뇌심혈관계질환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앞으로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뇌심혈관계질환은 중요한 발병 원인이 되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을 기존의 검진 체계를 통하여 어느 정도까지는 관리가 용이한 반면, 근골격계질환은 증상이 주관적인 경향이 강하며 조기진단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산업의학,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인간공학전문가 등을 주축으로 노사가 함께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접근을 하여야만 효율적인 관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들 질환의 관리(**조기발견**, **조기치료**, **예방교육** 등)에는 근로자와의 직접 면담을 통한 교육과 치료가 가능한 보건관리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대규모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는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의 일반 환자 치료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자는 3-6개월에 1회 정도의 방문 진료를 하는 실정으로 이들 질환의 관리

와 개선에 노력을 할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당면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보건관리자의 역할 강화와 제도적 보완이 강조되어야 한다.

1) 현황

모 조선소 작업관련 뇌심혈관계질환 발생자 수 (단위: 명)

연도 질환	1996	1997	1998	1999	2000	합 계
심근경색	1	1	1	1	1	5
뇌경색	1	2	0	3	0	6
뇌출혈	0	1	1	0	1	3
합계	2	4	2	4	2	14

모 조선소 근골격계질환 관련 요양신청자 수(1999~2001.6)

1. 요추 추간판탈출증 (201)
2. 경추 추간판탈출증 (11)
3. 수지진동증후군 (4)
4. 경추부 염좌 (4)
5. 요추부 염좌 (3)
6. 요추 섬유륜팽윤증 (2)
7. 근막통증후군, 수근관증후군, 외상과염 등 (11)

2000년 모 조선소 특수검진 근골격계 관련 질환자 수

1. 수근관진동증후군 (19)
2. 근막통증후군 및 건갑통증후군 (10)
3. 외상과염을 포함한 주관절질환 (9)
4. 척골신경마비 (3)
5. 수근관증후군 및 완관절 건초염, 활액낭염 (3)
6. 수부 류마티스관절염 (2)
7. 수부 건초염, 활액낭염, 섬유종 (3)
8. 경추 추간판탈출증 (1)

2000년 모 조선소 근골격계질환의 증상(허리제외) 호소율-48.7%, NIOSH 기준 자각 증상 유병율은 약 12%~26%이며 부위별로 어깨, 목, 손 및 손목, 팔 및 팔꿈치, 손가락의 차례로 유

병율이 높았다. 부서별, 작업별 유병율은 선행 도장부와 도장작업에서 가장 높았다.

2. 본론

1) 보건관리자의 역할

(1) 뇌심혈관계질환 관리

첫째, 검진 결과에 따라 뇌심혈관계질환의 중요 발병원인이 되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자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 여부를 확인하고, 미치료자가 있는 경우 적극적인 치료와 교육을 유도한다. 심한 환자는 보건담당 부서의 협조 하에 작업조절(잔업금지, 휴직 등)을 배려하고 해당과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하여 치료 후 소견서를 참조하여 복직 여부를 결정한다.

둘째, 이 질환은 서서히 진행되므로 검진 후 주요 원인 질환의 경향이 있거나 요주의자(검진결과 B-C급)로 판정 받은 대상에 대하여는 충분한 교육과 추적검사 등으로 병의 진행을 느리게 하거나 호전시키는데 주력한다.

셋째, 이 질환의 원인적 요인으로 예방과 관리에 중요한 흡연, 비만, 음주, 운동, 식생활 등의 개인 생활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며 특히 심혈관계질환의 가장 큰 위해 요인인 동시에 수완진동증후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흡연을 억제하기 위한 실질적인 금연 운동을 강화해야 한다.

(2) 근골격계질환 관리

첫째, 근골격계질환의 조기발견에서 증상이 중요한 부분이 되므로 설문지가 효율적이다. 노동부고시 단순반복작업 작업관리지침 제7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점검표 이용 등 기타 필요한 방법으로 작업장내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고 하므로 보건관리자는 필요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기치료와 예방법 등을 회사측에 권유한다.

둘째, 생산성을 강조하는 경우나 공정의 특성상 적절한 휴식시간이 지켜지기 어려운 경우 근골격계질환의 발생을 증가시키거나 악화시키게 되므로 적정 휴식시간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회사측에 권유한다.

셋째, 스트레칭은 근육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여 근골격계질환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미실시 작업장은 규칙적인 스트레칭 체조 시행을 권유한다.

넷째, 이들 질환은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므로 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직장의 세련된 환경조성,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 원활한 의사소통 등의 회사측 관리와

함께 명상, 요가, 바이오피드백, 호흡법 등의 이완법을 권장한다.

2) 보건관리자의 과제

첫째,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대책으로 보건관리자(산업의학전문의, 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와 인간공학자, 회사, 노동조합 등이 함께 참여하는 예방시스템을 구축한다.

둘째, 대기업의 보건관리자는 일반환자 치료에 소모하는 시간보다는 뇌심혈관계질환과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리에 시간과 노력을 배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절실하다. 소규모 작업장 보건관리자는 작업장의 방문횟수를 늘려야 한다.

셋째, 질병의 정도가 비교적 심한 경우 생산직보다 관리직 환자들이 치료에 불응하는 예가 많다. 치료 순응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3) 제도적 보완점

첫째, 현행 검진프로그램(특수검진, 일반검진)이 다양한 일반질환과 업무관련성질환(직업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최근 근로자들이 많이 호소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프로그램은 없는 실정이다. 현실을 고려한 근골격계질환 진단 프로그램을 검진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근골격계질환 관리를 위하여 작업환경측정과 같은 환경모니터링과 더불어 인간공학적 평가도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현행제도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방문 처방이 인정되지 않아 의료기관의 이용이 쉽지 않는 근로자에서 조기치료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자격 보건관리자(산업의학전문의 등)의 방문 처방이 인정되어야 한다.

넷째, 뇌심혈관계질환과 근골격계질환은 무엇보다도 장기적이며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 따라서 유자격 보건관리자(산업의학전문의 등)의 빈번한 이직, 대체를 배제할 수 있는, 즉 장기근무를 위한 여건 조성이 절실하다.

3. 결론

뇌심혈관계질환과 근골격계질환의 예방을 위해 **조기발견, 조기치료, 조기복귀**라는 원칙이 중요하며 이들 질환들의 예방을 위해 기존의 보건관리자와 관련 조직을 통한 시스템 구축과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